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김 미 경¹ · 노 진 형²

¹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²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A Study of Effects of Parental Ego-resilience and Marital Relationship on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Kim, Mi-Kyung¹ · Noh, Jin-Hyeong²

^{1,2}Kyungnam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bstract〉

Purpose: Present study identified how parental ego-resilience and marital relationship affect on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Particular focus was paid on the effects and relationship of the variables. **Method:**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the parents of 3-5 years old children in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in Kyeongsangnamdo. 313 questionnaires were finally entered for data analysis. Parental Ego-resilience, marital relationship, Ego-resilience of child was assessed by mother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3.0. **Results:** Firstly, parental ego-resilience, marital relationship and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were different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background. Secondly, parental ego-resilience and marital relationship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Considering the fact that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was affected by parental ego-resilience and marital relationship, parental variables should be treated as important as promotive program of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Conclus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paren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should be more in-depth including psychological nature of parents. In, addition building early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by parent-teacher-cooperation is addressed.

Key words : parent with young children,, ego-resilience, marital relationship, parent-teacher cooper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Noh, Jin-Hyeong, Kyungnam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nam Daehak-ro 7, Masanhappo-gu, Changwon-si, Korea, e-mail: michiaa@kyunanam.ac.kr

I. 서론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유아들의 대부분은 일찍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기 교육에 대한 효과성과 동시에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높는데 특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시간과 유아의 정서적 어려움이나 문제행동 등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들(김혜경, 류왕효, 2006; 노정민, 2010; 유희정, 최미진, 2013; 최현희, 김경숙, 2016)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유아의 적응력을 높이는 변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와 스트레스 환경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Block & Kremen, 1996) 유아가 다양한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탄력적인 자아가 필요한데 유아발달에서의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아는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이 높고(Rutter, 1985), 유아교육기관에 적응을 잘하며 문제행동도 적고, 행복감도 많이 느낀다(김현진, 지성에 2014; 박은성, 2012; 조경서, 남기원 2011). 또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며, 적절한 수준의 자아통제를 하고 친사회적이며 성실한 성격 특질을 가지고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지영, 2008; 장경문, 2003).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내면화 문제가 나타나고(한현아, 도현심, 2008), 자기기조절이나 정서조절 능력의 부족으로 비사회적 행동과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Block & Block, 1980).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정서 뿐 아니라 교육기관에서의 적응 및 사회관계 등 유아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양육과 관련된 부모요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국소영, 2013; 박상임, 2014; 이수기, 문병환, 2011; 이연숙, 2016; 장여진, 2014; 황혜원, 2013), 양육 효능감(김소영, 김성혁, 안미영, 2016; 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 양육참여(박재진, 2015; 유금화, 2013) 등의 연구가 있다. 최근에는 부모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는 접근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가족건강성(장여진, 2014; 황혜원, 2013)과 행복감(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방식과 함께 부모의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고혜진, 2005)와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민주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하여 유아를 양육한다는 연구결과(김혜경, 2014)는 부모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긍정

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하고, 이러한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같은 심리적 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김효은, 2006),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부부관계가 불만족스러우면 자녀 양육에도 소홀하게 된다(박성연, 임희수, 2000).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높고(박철웅, 2002)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인다(박생화, 2016). 영아 어머니의 부부관계의 질은 양육지식이나 양육효능감과 같은 어머니의 양육변인에 영향을 주고, 이는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2015) 부부관계가 유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이 양육행동(이형실, 2016) 및 유아의 정서지능(김종훈, 성지현, 2013)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자녀발달에 미치는 부모 변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부관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이면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고 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이면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낮다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여진, 2014). 부모의 공동양육과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배영자, 2017) 어머니의 부모 공동양육 인식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공동양육이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양육을 할수록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높게 나타났다(박재진, 2015). 어머니가 인식한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 연구(안정신, 2013)도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부부관계는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제외하고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부부관계 및 자녀의 자아탄력성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부부관계는 사회 인구학적 배경, 특히 부모의 소득(윤광미, 2011; 이은희, 2015), 학력(배영자, 2017)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관계에서의 친밀감이 높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 역시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부모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고(김경진, 2014, 류은옥, 2004), 아버지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자율적, 애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인영, 2013; 허영림, 2006). 부모의 소득 수준 역시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사고와 태도가 적극적, 긍정적, 낙관적이며(김은이, 2007), 가정의 질

소득이 많을수록 어머니는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이므로(김경진, 2014; 변수연, 2011) 부모관련 변인에서의 학력과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이후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유아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는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상남도에 위치한 유치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의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부된 400부 중 313부(78.2%)가 회수 되었고, 회수된 설문 중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294부(73.5%)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의 작성자는 어머니가 91.5%, 아버지가 8.5%였고, 부모연령은 35~40세 미만이 42.9%, 35세 미만이 31.6%, 40세 이상이 25.5%였다. 부모학력은 '2~3년제 대학교 졸업'이 44.9%,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이 32.0%,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3.1%였고, 직업은 '전일제'가 37.4%, '시간제'가 17.3%, '없다'가 45.2%였다. 월수입은 '400~500만원 미만'이 25.9%, '300만원 미만'이 16.3%, '600만원 이상'이 13.9%, '500~600만원 미만'이 13.3%, '300~400만원 미만'이 3.6%였다. 자녀수는 '2명'이 65.0%, '1명'이 19.4%, '3명 이상'이 15.6%였고, 자녀성별은 '남아'가 53.1%, '여아'가 46.9%였다. 자녀연령은 '만 5세'가 34.0%, '만 3세'와 '만 4세'가 각각 33.0%였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37.1%, '둘째'가 34.4%, '외둥이'가 19.4%, '셋째이상, 막내'가 9.2%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부모의 자아탄력성 척도

부모의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미향, 김성희(2010)가 개발한 자아탄력성 도구를 수

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사고(10문항), 문제해결(9문항), 친밀행동(7문항), 감정조절(6문항), 자율행동(7문항) 등 5개 하위요인 총 3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총 점수 범위 39~19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5개 하위요인 중 감정조절 문항 29번과 자율행동 전체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다.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전체 .91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긍정사고 .89, 문제해결 .97, 친밀행동 .83, 감정조절 .77, 자율행동 .73으로 나타났다.

2) 부부관계 척도

부부간의 친밀감과 상호 존중 등을 알아보기 위해 Barrrt-Lennard(1996)의 부부관계 질문지(Relationship Inventory, 부부용)를 수정·보완한 박남숙(2000)의 부부관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존중(16문항), 공감(16문항), 일치성(16문항) 등 3개 하위요인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거의 아니다(2점), 아닌 편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대부분 그렇다(5점), 확실히 그렇다(6점)로 평가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나타낸다. 부부관계 전체의 신뢰도는 .96나타났는데,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존중 .94, 공감 .87, 일치성은 .89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자아탄력성 척도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LeBuffe와 Naglieri(1999)가 개발한 DECA(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중 '전체 보호요인(Total Protective Factors)' 척도를 고영희(2010)가 번안, 제작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애착(8문항), 자기통제(8문항), 주도성(11문항) 등 3개 하위요인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행동의 빈도를 평가하는 평점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점), 매우 드물게 있다(2점), 때때로 있다(3점), 자주 있다(4점), 매우 자주 있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s α 는 .90이며, 하위 요인별로는 애착 .75, 자기통제 .85, 주도성 .83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설문지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6년 9월 5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만 3세~ 만 5세 유아의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방법을 설명한 뒤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각 문항을 이해하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설문지 작성하는 데 20~2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 설문지의 구성 및 소요 시간이 적당하다고 판단되

었다. 본 조사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 하여 만 3세~ 만 5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400부를 배부한 뒤 313부를 회수하였다. 답변 설문지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응답이 부실한 설문을 제외한 294부(회수율 73.5%)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논문을 위해 조사된 설문지 자료는 SPSS 14.0에 코딩 후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도구들의 내적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부모들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부모의 자아탄력성, 부부관계,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배치 변량분석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에 대해 Scheffé 다중비교를 적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자아탄력성, 부부관계, 유아의 자아탄력성 사이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 기술통계

1) 부모의 자아탄력성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하위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3.69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에서 긍정사고가 4.03, 문제해결이 3.74, 자율행동이 3.63, 친밀행동이 3.60, 감정조절이 3.25로 나타났다.

<표 III-1>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하위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하위요인	평 균	표준편차
긍정사고	4.03	.45
문제해결	3.74	.50
친밀행동	3.60	.57
감정조절	3.25	.52
자율행동	3.63	.48
전 체	3.69	.35

부모의 자아탄력성 전체 문항의 평균을 부모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차이 검정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부모의 자아탄력성은 부모학력($F=5.90, p<.001$)과 월수입($F=6.8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인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부모보다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부모가 300만원 미만인 부모보다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일반적인 배경에 따른 부모의 자아탄력성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	Scheffé
부모 연령	35세 미만	93	3.71	.33	.24	-
	35~40세 미만	126	3.69	.36		
	40세 이상	75	3.68	.37		
부모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a)	68	3.58	.38	5.90***	c>a
	2~3년제 대학교 졸업(b)	132	3.70	.35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c)	94	3.77	.30		
부모 직업	전일제	110	3.73	.36	1.71	-
	시간제	51	3.71	.24		
	없 다	133	3.65	.37		
월수입	300만원 미만(a)	48	3.51	.43	6.89***	c,d,e>a
	300~400만원 미만(b)	90	3.66	.30		
	400~500만원 미만(c)	76	3.71	.31		
	500~600만원 미만(d)	39	3.77	.33		
	600만원 이상(e)	41	3.86	.34		
	전 체	294	3.69	.35		

*** $p<.001$

2) 부부관계

부부관계 및 하위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III-3>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관계는 평균 4.43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에서 존중이 4.77, 일치성이 4.40, 공감미 4.12로 나타났다.

〈표 III-3〉 부부관계 및 하위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하위요인	평 균	표준편차
존 중	4.77	.75
공 감	4.12	.63
일치성	4.40	.67
전 체	4.43	.64

부부관계 전체 문항의 평균을 부모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차이 검정한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부부관계는 부모학력($F=4.65$, $p<.01$)과 월수입($F=3.69$,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인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부모보다 부부관계가 유의하게 좋았고, 월수입이 600만원 이상인 부모가 300만원 미만인 부모보다 부부관계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일반적인 배경에 따른 부모의 부부관계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	Scheffé
부모 연령	35세 미만	93	4.49	.68	1.60	-
	35~40세 미만	126	4.45	.59		
	40세 이상	75	4.32	.67		
부모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a)	68	4.29	.69	4.65**	c>a
	2~3년제 대학교 졸업(b)	132	4.39	.62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c)	94	4.58	.61		
부모 직업	전일제	110	4.51	.68	1.32	-
	시간제	51	4.41	.60		
	없 다	133	4.37	.62		
월수입	300만원 미만(a)	48	4.18	.59	3.69*	e>a
	300~400만원 미만(b)	90	4.42	.58		
	400~500만원 미만(c)	76	4.49	.74		
	500~600만원 미만(d)	39	4.38	.54		
	600만원 이상(e)	41	4.67	.64		
	전 체	294	4.43	.64		

* $p<.05$, ** $p<.01$

3)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하위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III-5>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3.79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에서 애착이 4.16, 주도성이 3.73, 자기통제가 3.52로 나타났다.

〈표 III-5〉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하위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하위요인	평 균	표준편차
애 착	4.16	.48
자기통제	3.52	.59
주도성	3.73	.53
전 체	3.79	.45

유아의 자아탄력성 전체 문항의 평균을 부모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차이 검정한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부모학력($F=5.38, p<.01$)과 월수입($F=2.72, p<.05$), 자녀연령($F=3.09,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2~3년제 대학교 졸업과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인 부모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부모의 자녀보다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월수입이 600만원 이상인 부모의 자녀가 300만원 미만인 부모의 자녀보다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녀연령이 만 5세일 때 만 3세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일반적인 배경에 따른 유아의 자아탄력성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	Scheffé
부모 연령	35세 미만	93	3.82	.44	.79	-
	35~40세 미만	126	3.81	.44		
	40세 이상	75	3.74	.47		
부모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a)	68	3.65	.42	5.38**	b,c>a
	2~3년제 대학교 졸업(b)	132	3.81	.43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c)	94	3.87	.47		
부모 직업	전일제	110	3.82	.44	.26	-
	시간제	51	3.79	.42		
	없 다	133	3.77	.47		
월수입	300만원 미만(a)	48	3.64	.42	2.72*	e>a
	300~400만원 미만(b)	90	3.76	.44		
	400~500만원 미만(c)	76	3.81	.46		
	500~600만원 미만(d)	39	3.88	.48		
	600만원 이상(e)	41	3.92	.40		

(표 계속)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	Scheffé
유아 연령	만 3세(a)	97	3.70	.41	3.09*	c>a
	만 4세(b)	97	3.82	.48		
	만 5세(c)	100	3.86	.45		
유아 성별	남	156	3.75	.49	-1.854	-
	여	138	3.84	.40		
	전 체	294	3.79	.45		

* $p<.05$, ** $p<.01$

2.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자아탄력성, 부부관계,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다소 높은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7$, $p<.01$). 따라서 부모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도 정(+)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부모의 자아탄력성보다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r=.33$, $p<.01$).

그리고 부모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유아의 자아탄력성($r=.48$, $p<.01$), 긍정사고와 유아의 자아탄력성($r=.37$, $p<.01$), 자율행동과 유아의 자아탄력성($r=.35$, $p<.01$), 친밀행동과 유아의 자아탄력성($r=.28$, $p<.01$)은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감정조절요인은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관계의 하위요인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에서, 공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r=.32$, $p<.01$), 일치성과 유아의 자아탄력성($r=.31$, $p<.01$), 존중과 유아의 자아탄력성($r=.30$, $p<.01$)도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III-7> 부모의 자아탄력성, 부부관계,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유아의 자아탄력성	긍정 사고	문제 해결	친밀 행동	감정 조절	자율 행동	부모 탄력성 전체	존중	공감	일치 성	부부 관계 전체
애착	.29**	.41**	.23**	.07	.25**	.38**	.33**	.30**	.31**	.33**
자기통제	.26**	.31**	.19**	.07	.23**	.32**	.19**	.19**	.14*	.19**
주도성	.36**	.47**	.28**	.13*	.39**	.48**	.26**	.32**	.33**	.32**
전체	.37**	.48**	.28**	.11	.35**	.47**	.30**	.32**	.31**	.33**

* $p<.05$, ** $p<.01$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부부관계의 하위요인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부모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을 모델 I에 투입하였고, 모델 II에서는 부부관계의 하위요인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III-8>과 같다. 모델 II에서 부부관계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회귀분석 등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7의 기준(김태근, 2006, p. 219)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공차 한계 값과 VIF 값을 확인하였는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 I에서 부모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beta=.35$, $p<.001$), 자율행동($\beta=.13$, $p<.05$)이 유아들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 모두 표준화 계수 베타 값이 양(+)으로 유아들의 자아탄력성을 더 높게 만드는 변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표준화 베타 값이 큰 문제해결이 자율행동에 비해 유아들의 자아탄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들이 유아들의 자아탄력성을 26%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에서는 부모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인 문제해결($\beta=.33$, $p<.001$), 자율행동($\beta=.12$, $p<.05$)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추가된 부부관계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부부관계가 유아들의 자아탄력성을 28%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델 I에 부부관계의 하위요인이 추가됨으로써 2%정도의 예측력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8>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변 인		모델 I		모델 II		공차	VIF
		β	t	β	t		
부모의 자아탄력성	긍정사고	.05	.65	-.01	-.10	.50	2.00
	문제해결	.35	4.94***	.33	4.63***	.51	1.96
	친밀행동	.09	1.62	.10	1.78	.79	1.27
	감정조절	.00	-.04	.00	-.06	.91	1.09
	자율행동	.13	2.18*	.12	2.04*	.70	1.44
부부관계	존 중			-.05	-.49	.23	4.39
	공 감			.14	1.43	.26	3.92
	일치성			.08	.76	.24	4.11
R^2		.26		.28			
ΔR^2		-		.02***			
F		19.64***		13.67***			

* $p<.05$,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만 5세 유아의 부모 294명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자아탄력성, 부부관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 설문지를 유아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정으로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회수한 자료는 SPSS 14.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학력과 월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부모보다,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부모가 300만원 미만인 부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다른 어머니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는 오현경(2009), 홍혜정(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학력과 월수입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관계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부모보다, 월수입이 600만원 이상인 부모가 300만원 미만인 부모보다 부부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관계가 부부 수입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는 안정신(2013)과 월수입이 높을수록 부부관계의 친밀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이은희(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학력이 고졸이하일 때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났다는 배영자(2017)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이정희(198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부모학력과 월수입,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2~3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부모들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부모들의 자녀보다 높게 나타났고, 월수입이 600만원 이상인 부모들의 자녀가 300만원 미만인 부모들의 자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다는 안미정(2016)의 연구와 같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 양육태도(이선애, 2000; 한태숙, 황혜정, 2010) 애정·수용적, 민주·자율적 양육태도(이정희, 1986) 및 이와 동시에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윤광미, 2011)이라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과의 긍정적인 상관관계(장여진, 2014)를 고려할 때 부모의 학력, 월수입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을 하고(김경진, 2014; 류은옥, 2004; 신인영, 2013; 허영림, 2006) 이러한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진다.

유아의 연령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는 많은 연구들(구희정, 강정원, 2009; 이수기, 문병환, 201)의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둘째,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

모의 자아탄력성과 부부관계는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는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자아탄력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 (박수빈, 2015; 이태옥, 2015)와 같은 맥락이며, 어머니가 인식한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안정신, 2013)와 동일한 결과이다.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은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이수기, 문병환, 2011)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격려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조순옥, 2016; 황혜원, 201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은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부 관계가 좋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수용적이 됨으로써(박철웅, 2002, 이정희, 1986) 유아에게 보다 민감하고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부부갈등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이주연, 2013)

한편,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부부관계는 부모의 자아탄력성이 26%, 부부관계가 2%로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아탄력성이 부부관계보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부모가 유아를 양육하면서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유아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의 하위요인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모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 자율행동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 중 문제해결이 자율행동에 비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어머니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행복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6), 특히 어머니의 문제해결 능력은 자신의 양육 상황과 관련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으로 볼 때,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지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지원과 지지는 유아를 공동양육하는 부모-교사 협력을 통한 유아교육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정계숙, 손환희, 김지연, 2019) 가능할 수 있다. 유아교육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의 정서, 사회, 인지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접근을 통해 부모의 개인적, 심리적 건강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 및 유아 대상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별, 가족별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

모의 자아탄력성과 부부관계는 양육태도와도 상관이 있으므로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은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모-유아가 한 집단으로 포함되는 가족 중심의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자아탄력성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부모의 문제해결력을 포함한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부모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정보와 자녀교육 방법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사와의 협력 및 공동체 인식 형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협력 및 공동체 의식을 통해 부모의 육아에 대한 자신감과 증진된 육아 실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경상남도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용 설문지를 가정으로 배부하여 보호자 1인이 작성한 것으로 91.5%가 어머니의 보고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여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용 설문지를 이용하여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여 부모 보고형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에는 부모, 교사 등 다자에 의한 설문지 또는 직접적인 관찰 등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영희 (2010).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혜진 (2005).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희정, 강정원 (2009). 유아교사의 교수 스트레스와 유아와의 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1), 281-297.
- 국소영 (2013). 한부모 가정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진 (201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향, 김성희 (2010). 아동, 청소년 상담; 중학생 자아탄력성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1(1), 189-206.
- 김소영, 김성혁, 안미영 (2016). 어머니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8), 397-406.
- 김은이 (2007). 취학 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훈, 성지현 (2013).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부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87-105.
- 김지영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지각수준 및 대처양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지성애 (2014).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과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2(1), 233-257.
- 김효은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과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2014).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유아 문제행동 인식과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류왕효 (2006).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스트레스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5, 207-225
- 노정민 (2010). 시간연장보육 영유아의 스트레스행동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은옥 (2004).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 대인문제해결사고와의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임 (201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 정서표현성과 유아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서 유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 임희수 (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박생화 (2016). 부부관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유아의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빈 (2015). 취업모의 자아탄력성 및 자녀교육 참여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진 (2015). 부모공동양육과 유아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철웅 (2002).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자 (2017).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공동양육 및 부부갈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수연 (2011). 자녀수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인영 (2013).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신 (2013). 어머니가 인식한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경 (2009).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유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금화 (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가족의 건강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 최미진 (2013). 어린이집 하루일과에서 나타나는 만 3, 4, 5세 유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3(3), 117-141.
- 윤광미 (2011).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적응 간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애 (2000). 가족자원 및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1), 5-24.
- 이수기, 문병환 (2011).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5(6), 259-274.
- 이연숙 (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 (2015).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가 유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 (201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정서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임상사회사업연구, 10(2), 39-52.
- 이태옥 (2015).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실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20(3), 17-28.
- 임희수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경문 (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 장여진 (2014).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1), 73-97.
- 정계숙, 손환희, 김지연 (2019). 유아교사-부모 협력과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14, 45-67.
- 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2015). 6개월 영아 어머니의 부부관계 질, 양육지식, 양육효능감과 영아 발달 간의 구조적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1), 1-24.
- 조경서, 남기원 (2011).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4), 161-178.
- 조순옥 (2016).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및 유아의 사회적유능감과 자아탄력성 간 관계. *육아지원연구*, 11(1), 95-118.
- 최현희, 김경숙 (2016).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의 차이. *유아특수교육연구*, 16(2), 43-62.
- 한태숙, 황혜정 (2010).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정서성, 부부갈등 및 양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0(5), 99-119.
- 한현아,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허영림 (2006).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6(1), 97-116.
- 홍혜정 (2011).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문제행동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원 (2013). 가족탄력성과 어머니의 심리적복지감 및 양육행동이 저소득층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일반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2), 81-103.
- Block, J.,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Vol.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국문초록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김 미 경¹ · 노 진 형²

¹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²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모의 자아탄력성 및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만 5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여 최종 294부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의 자아탄력성, 부부관계 및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학력,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부부관계는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녀 양육지식 및 기술 뿐 아니라 부모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특질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부모-교사 협력을 통한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제어 : 부모, 자아탄력성, 부부관계, 유아, 유아교육공동체, 부모-교사 협력

논문접수 : 2019. 05. 16. / 수정본 접수 : 2019. 06. 05. / 게재승인 : 2019. 06. 20.